

독코 전투의 고찰

이 글에는 월남전에 참가한 수도사단의 1개 중대가 불의에 월맹군 1개 대대 규모의 야습을 받게 되었으나, 당시 한국군의 전술개념이었던 중대전술기지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이들을 성공적으로 격퇴시킨 독코 전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미군의 전술 개념은 한국군과는 상반된 기동타격 개념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이 독코 전투를 계기로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방식인 기지개념의 평정작전에 대한 실효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서 언

한국군 수도사단은 1965년 10월 22일 자유월남을 공산침략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전투사단으로서는 최초로 퀴논(Qui Nhon)에 상륙하였다.

그곳에서 미 제101공수사단과 미 해병 제7연대로부터 1,200km²에 달하는 작전지역을 인수한 수도사단은 1966년 3월 말까지 고보이(Go Boi) 평야의 빈케(Binh Khe) 일대에서 활동중인 월맹군과 베트콩을 격파하고 대부분의 전술책임지역을 평정하였다.

이때 미 제1야전군은 캄보디아(Cambodia) 국경선 부근의 19번 공로와 야드랑(Ia Drang)강 사이에서 월맹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하여 링컨(Lincoln)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지대의 넓이에 비하여 가용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미 제1야전군사령부에서는

6월 24일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증강된 1개 대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966년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 대대 특수임무부대(Bn. TF)를 미 제 25사단 제 3여단에 배속하여 펄리버어(Paul Revere)작전을 지원하였다.

이것을 사단에서는 번개 66-9 호작전이라고 불렀으며, 이 배속기간 중 독코 부근에 진지를 편성한 한국군 1개 중대가 월맹군의 증강된 1개 대대를 격파한 혈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투를 독코전투라고 이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전투를 주제로 삼고 상술하되, 전세의 추이를 대관할 수 있도록 번개 66-9 호작전의 요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독코전투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작전개념인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중요성을 최초로 입증한 전투로서 여기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돌이켜보기로 한다.

독코전투의 배경

독코(Duc Co)는 중부월남의 플레이쿠(Pleiku)성과 캄보디아의 라타나키리(Ratanakiri)주가 접한 국경선 동쪽의 19번도로와 야드랑(Ia Drang)강 사이에 있으며, 월맹군이 호지명 통로를 거쳐 월남에 침투하는 경로상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 일대에는 몬타나아드(Montagnard)족이 살고 있으며,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재배한 고무나무와 바나나 밭이 황폐한 채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이 지대는 2m 높이의 잡초가 무성하고 수목이 우거진 탓으로 도보행동과 관측 및 사계에 심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지형에 익숙한 공산군들은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가 있는 반면, 연합군들의 활동은 많은 제한을 받는 곳이었다. 특히, 그들은 상황이 불리하면 이른바

성역(聖域)이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영내로 퇴각해 가므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물론 이 지역은 수도사단과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전술책임지역은 아니었으며, 더우기 한국군의 작전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수도사단 제 1 기갑연대 제 3 대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 제 1 야전군은 1966년 3월 25일부터 그 이하의 제 1 공중기갑사단과 제 25 보병사단을 캄보디아 국경선 부근에 투입하여 월맹군에 대한 공세에 나섰으며, 이것을 링컨작전이라고 불렀다. 이 작전은 점차 사단 규모의 작전으로 확대되면서, 5월 10일부터 미 제 25사단의 제 3 여단이 플레이쿠와 추퐁(Chu Pong)강 사이에 전개되어 펠리비어(Paul Revere)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미 제 1 야전사령부에서는 자체의 가용병력이 부족하게 되어, 주월한국군의 사령관 채명신 소장에게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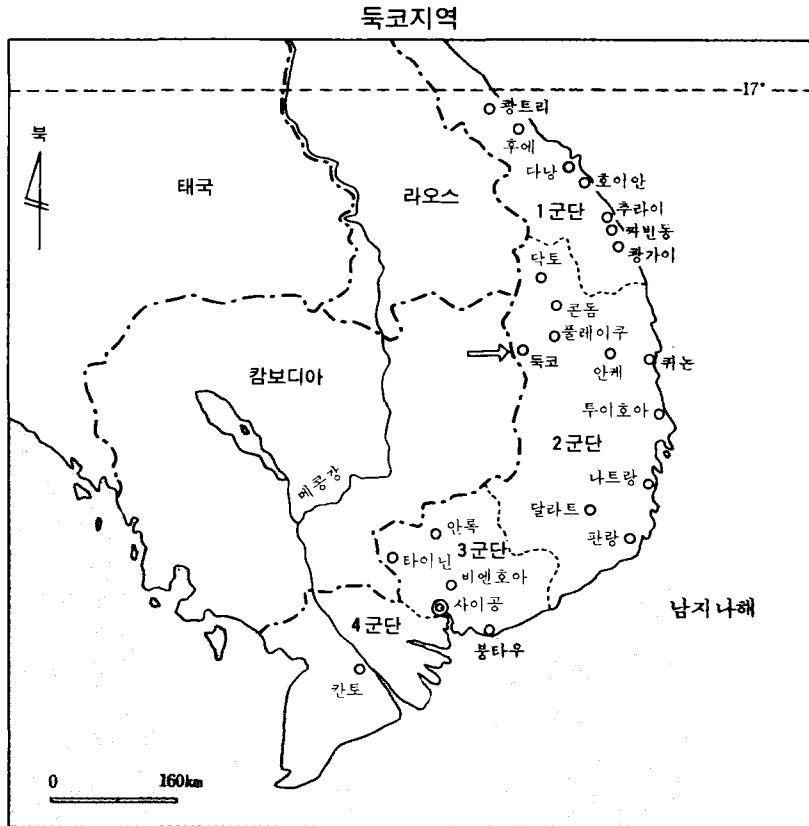
그러나, 채명신 소장은 일단 미군측의 제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① 수도사단의 모든 장비는 미군과 달리 구식이다. 미군은 M16 소총으로 무장되었지만 한국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M1 소총과 카빈소총으로 장비되어 있다. 특히, 통신장비는 그 교신 통달 거리가 짧고 노후한 까닭에 원시림 내에서의 작전행동에는 많은 지장이 있다.

2 병력을 지원할 경우, 그 부대는 사단전술책임지역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작전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보급지원능력이 부족하다.

3 작전통제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표면상 세 가지의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고국의 국민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월남전은 명분이 중요하고 참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한없는 학전에 말려들어가 원시림의 벽지에 한국군을 투입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건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작전개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처음 쿨논에 상륙한 수도사단의 배치에 대하여 미군 당국과 상당히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미군 당국은 한국군을 사단 또는 연대 단위로 집결하게 한 다음, 작전지역을 광범위하게 누비며 미군처럼 기동타격대로 운용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고 책임평정지역 내에 병력을 중대 단위로 분

산배치하여 중대기지를 설치하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지역평정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기지의 작전개념은 미군측으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월남전에서 가장 적절하고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군이 중대기지를 설치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지역평정작전을 전개하려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 중대기지는 전투력의 핵인 중대 단위로 방어 편성을 하므로 조직과 편성을 적절하게 안배한다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2 한국군과 같이 헬리콥터나 차량 등 기동력이 부족한 많은 부대가 한 곳에 집결한다는 것은 어떤 돌발작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의 목표로서의 취약점만 증대시킬 뿐이다.

3 중대 단위의 기본조직을 활용하여 월남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심리전이나 대민사업을 편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평정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

4 월남전에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 따라서 말단 중대 단위의 세밀한 정찰과 빈번한 대민 접촉으로 첩보를 얻은 뒤, 이를 분석한 다음에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이유 이외에도, 전략적으로는 한국군을 일정지역에 고착시켜 단계적인 지역평정작전을 수행할 경우 불필요한 희생을 억제하면서 월남평정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미군 당국은 항상 이 사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차 국경지역작전에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지원을 요청한 미군 당국은 주월한국군사령부의 거절이유 중에서 세 가지를 해결해주는 방향에서 다시 절충하여 왔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의 통신장비 개선을 위하여 미군이 보유한 AN PRC-25 신형 무전기 27대를 보급하고, 둘째 조건은 미 제 25보병사

단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필요한 보급품을 전량 지원하며, 세제 조건은 미 제 3 여단에서 작전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마침내 미군 당국에서 제의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지원 요청에 동의하게 되었다.

전투경과

부대 이동 및 전개

1966년 7월 6일 사단으로부터 준비명령을 받은 제 1 기갑연대는 출동부대로 내정된 제 3 대대에 특수임무부대로서 필요한 지원부대를 배속시켰다. 배속된 지원부대는 포병 제 61 대대 제 3 포대(105mm 곡사포 6문)와 포병 제 628 대대 제 3 포대(155mm 곡사포 4문), 그리고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 사단공병대대 제 1 중대 제 1 소대였다. 특히,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작전명령상에는 모든 전술기지에는 72시간 동안 재보급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보급품을 준비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 이는 제 3 대대가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파견되지만 중대기지의 작전개념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다.

제 3 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준비명령을 받자 ‘정글전’에 대비하여 독도법과 소부대 전투 및 화력운영에 중점을 둔 출동전 교육을 실시하며 출동태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지원화력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배속된 2개 포대와 4.2인치 중박격포 1개 소대 그리고 관측용으로 지원된 사단항공대의 0-1기 2대로 포대군을 편성하고 포병 제 61 대대 제 3 포대장 김진규 대위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월한국군사령관 겸 수도사단장인 채명신 소장은 대대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대대장에게 미 제 3 여단에 배속된 기간중 준수해

야 할 전술적 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작전시에는 2개 중대를 지원포병의 사거리내에서 상호 증원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예비로 1개 중대를 확보하라.

2 중대전술기지는 그 사주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지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탐색지역을 확대하라.

3 만약 적이 아군기지를 공격하면 결전을 감행하라. 이를 위하여 72시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을 확보하라.

그로부터 3일 뒤인 7월 9일에 제3대대는 행군중대를 4개 제대로 편성하고 트럭 187대에 분승하여 아침 6시에 라이웅(Lai Nghi)을 출발하여, 오후 2시 정각에 목표지역인 독코비행장에 도착하였다. 행군거리는 187km이며 행군장경이 50km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일단 대열을 정돈한 대대는 그곳에 포병 제628대대 제3포대를 남기고, 다시 남쪽으로 7km를 진출한 끝에 플레이기라오킬(Plei Girao Kle)에 도착하여, 대대전술지휘소와 예비대인 제9중대, 그리고 포병 제61대대 제3포대 및 4.2인치 중박격포소대가 계획된 장소로 진입하였다.

한편,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여기서부터 도보로 행군을 계속하여 제10중대는 대대전술지휘소 북서쪽 2.5km 떨어진 지역에, 제11중대는 그 남서쪽 3.5km 지역에 각각 중대기지를 점령하였다.

전투실시

전투전의 상황

제3대대에 할당된 책임지역은 캄보디아 국경선과 독코 간, 그리고 19번도로로부터 야드랑 강의 지류인 야프논(Ia Pnon)천 중류까지 이르는 폭 13km, 종심 11km에 달하는 정글지대이었다. 그 북쪽은 월남의 비정규군 민방위대 1개 중대와 접하고 있었으며, 남쪽은 미 제3

여단 제 35보병 제 1대대가 전개하고 있었다. 또, 독코비행장에는 미 포병의 8인치 곡사포 및 175mm 평사포 각 2문과 미 제69기갑전차 제 1중대, 월남 비정규군 민방위대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제 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그곳에 진출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 각 중대로 하여금 중대기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첫째, 중대기지는 사주방어 원칙에 의거하여 내곽과 외곽의 이중진지를 준비하되, 중대관측소와 공용화기 진지 및 취침소는 모두 유개호로 만든다.

둘째, 야간조명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모든 조기경보수단을 최대로 활용한다.

세째, 기지의외곽으로부터 150m~400m 떨어진 적의 예상접근로에 지원 포병의 화집점 4~5개를 설정한다.

이러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 중대가 중대전술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자, 첫날부터 미군과 병력운용 방식에 관해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작전통제권자인 미 제3여단장 워커(Walker) 준장은 자기에게 배속되었으니, 자기의 작전지도 방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내의 탐색·정찰·잠복으로 침투하는 적을 포착 격멸하는 것이니, 명에 의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여단장의 작전방침은 책임 지역내의 세상되는 적의 접근로에, 4명~5명 단위의 지상감시초소로 연결된 선을 형성하여 적의 접근을 탐지, 포병화력으로 이를 격파하거나 예비대를 투입할 때까지 접촉을 유지하게 하여 이를 기동으로 타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그 시점에서 장비와 화력이 불비하고 전기(戰技) 또한 그 방식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하기로 하고 우선 수도사단장의 지침에 따라 기지 운용에 필요한 3일분의 식량과 탄약의 보급을 제3여단에

요청하였으나, 여단장은 자신의 작전방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조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공중기동하게 될 것이므로 미군의 보급수준만큼만 보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대대는 105mm 곡사포탄 2,700발과 155mm 곡사포탄 1,500발을 청구하였으나, 미 제3여단에서는 800발선을 고집하면서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책임지고 두 시간 이내에 재보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제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이러한 내용을 연대를 경유하여 사단에 보고하였다. 사단으로부터는 사단전술개념을 근간으로 임무를 수행하되 작전통제권자와 충분히 협조하라는 회신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우선 중대 단위의 전술기지를 준비하도록 한 연후에, 미 제3여단장의 방침에 따라 전투에 임하기로 작정하고 각 중대 및 포대장에게 72시간분의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대대는 탐색지대를 확대하면서 매일 각 중대 단위로 2개 소대 규모의 수색정찰과 야간잠복조를 설치운용하였다. 이리하여, 8월 9일 제9중대가 통칭 ‘독코전투’를 전개할 때까지 대대는 30일 동안에 수색정찰 147회, 잠복 385회를 실시하였다.

제9중대의 전황

지형 및 병력배치

제9중대의 전술기지는 대대지휘소가 위치한 플레이기라오킬(Plei Girao Kle)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표고 200m의, 경사도가 완만한 구릉지대에 설치되었다. 이 기지의 사주는 정글로 덮여 있었으며 그 서쪽 600m 떨어진 곳에 이아클(Iacle) 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한가닥의 소로가 북쪽으로 나 있다.

이 기지는 처음 미군이 잠시 동안 야영한 적이 있었으며, 제11중대가 이 장소를 개척하여 동서 200m, 남북 100m 규모의 진지를 구축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7월 27일 제9중대가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 일대의 토질은 황토로서 예상외로 단단하여 굴토작업이 어려웠던 반면, 그만큼 진지는 견고하였다. 또 기지 서쪽 200~300m간에는 수목이 없는 평탄한 지역이었으며,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기지의 남쪽 일대는 외곽선과 정글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지표면의 굴곡이 심하여 직사화기의 사각지대가 많았으므로 적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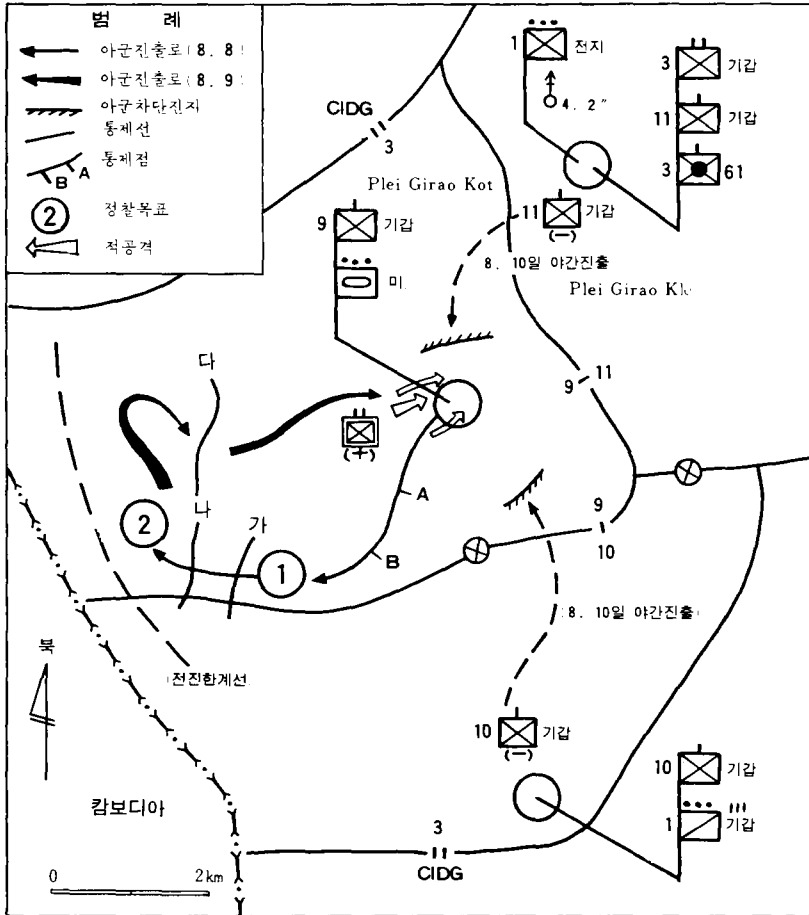
제9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제11중대와 임무를 교대하라는 준비명령을 받고, 7월 25일에 제2소대를 선발대로 미리 보내어 진지를 보강하도록 하였다. 그 뒤 7월 27일 본대의 이동이 완료되자, 지형이 좋지 않은 곳에 배치된 제2소대에 중화기중대의 제1소대(-)를 배속하여 기지 남서 일각부터 북서쪽 일부까지의 서반부를 책임지게 하였으며, 미군으로부터 배속받은 전차 5대 중 3대로 화력을 증강하도록 하였다. 또, 우측으로 제3소대를 전개하여 북쪽과 북동쪽 일각을 담당하도록 하고, 남동과 남쪽 일각에 제1소대 및 전차 2대를 배치하였다.

한편, 내곽선에는 중대관측소와 60mm 및 81mm 박격포 각 3문을 방렬하였으며, 외곽선으로부터 300m~400m 떨어진 사각지대에는 4개소의 화집점을 선정하고 아울러 100발의 조명지뢰를 매설하였다.

국경선 정찰

1966년 8월 6일 미 제3여단장 워커 준장이 순시차 대대지휘소에 도착하여, 대대장 최병수 중령에게 최근에 확인된 적정과 전황을 알려준 다음, 소재는 불명하나 국경선 부근에 단대호 미상의 월맹군 지휘소가 새로 설치된 징후가 보이니, 1개 중대 규모로 2박 3일 간에 걸쳐 용의지대를 수색 정찰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대장은 곧 이 임무를

대대배치 및 국경선 정찰경로



그리하여 제9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제11중대의 1개 소대와 중화기 중대에서 배속받은 2개 소대(一) 및 미군 전차 1개 소대에게 기지 방어를 맡기고, 다음날인 8일 06:00에 국경선을 목표로 정찰에 나섰다. 이번 정찰에는 전날 부임한 신임중대장 강세호 대위도 동행하였다.

얼마 후 중대장은 정글 속의 작은 길목마다 적이 활동하였던 흔적과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로를 피하여 새 진로를 개척하면서 17:00에 목표인 국경선 동쪽 1km 떨어진 240고지에 도착하였다. 중대장은 목표지역에 대한 수색정찰을 끝마치고 야간잠복조를 배치하였다. 이 날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를 맞으며 한 밤을 지새운 중대원들은 9일 05:40 어둠이 걷히자, 곧 정찰을 재개하였으나 접적 없이 임무를 마치고 15:00에 중대기지로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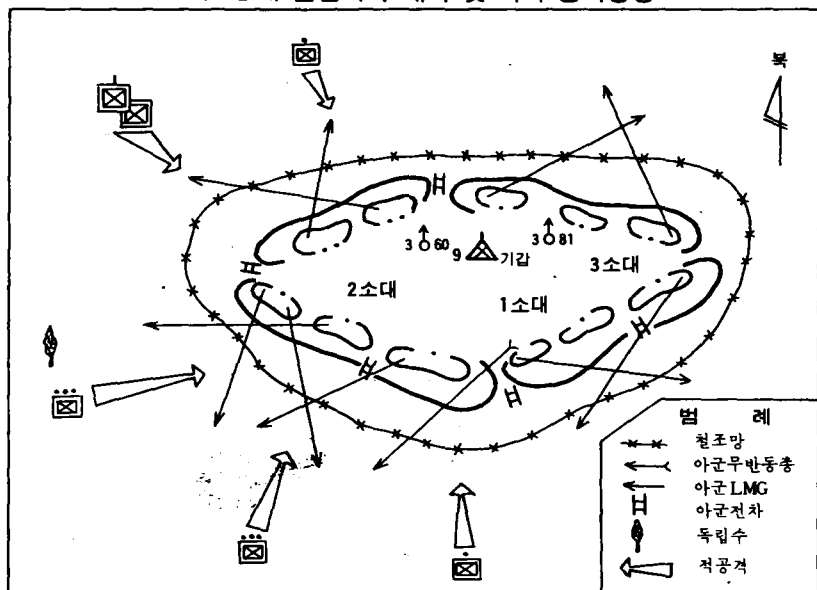
월맹군의 야습

중대장은 기지에 복귀하는 즉시 비에 젖은 장비를 손질시키는 한편 경계차 지원나온 제11중대 제1소대를 원대에 되돌려보냈다. 대대장은 이날 밤에도 2개 소대 규모의 야간잠복조를 기지전방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중대장은 이틀간 비를 맞으며 정글속을 누비고 수색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중대원에게 휴식도 없이 잠복을 강행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경계의 허점이 드러나기 쉽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지에 잔류한 병력으로 외선을 강화하고 주력은 일찍 취침하도록 하였다.

이날 밤은 그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간혹 별들이 반짝이기도 하였다. 중대 장교들은 초저녁에 모두 관측소에 모여 2일 전에 부임한 강대위와 임중위를 환영하는 조출한 모임을 갖고, 파월 한국군으로서는 처음 실시한 캄보디아 국경선까지의 정찰과 그밖의 전투경험담으로 꽃을 피웠다.

얼마 후 장교들은 각자 맡은 부서로 돌아갔다. 잠자리에 누운 신구임 두 중대장은 그때 비로소 그들의 출생지가 같은 고향인 함경남도라는 것을 알고, 그 동안에 겪은 세파의 회노에락을 주고받느라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제9중대 전술기지 배치 및 적의 공격방향



이윽고 22:40에 제2소대 전면의 독립수 근처에서 조명지뢰 1발이 터졌다. 중대장은 제2소대장에게 '확인한바, 그 부근에서 근무하던 소대원은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옆의 미군 전차병도 같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분도 채 못 되어 외곽선을 순찰하던 화기소대장 임복만 중위가 혈떡이며 중대장에게 달려와서, "제2소대 전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하였다.

중대장은 임중위가 처음 부임해 온만큼 신경이 과민하여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 제2소대 전면으로는 전술상 적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임중위가 다시 현장에 달려가 보니 57mm 무반동총 부사수 박창규 병장이 “많은 병력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므로 다시 중대본부로 뛰어갔다. 중대장은 두 번째 보고를 접하자 미전차의 탐조등을 비쳐 보라고 지시하였으나, 그때도 중대원들에게는 비상발령을 하지 않고 다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뒤, 임중위가 제2소대 진지 일각에 위치한 전차 근방에 이르렀을 때 최병기 상병이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임중위는 심상치 않다고 직감하고, 즉시 미군 전차병에게 의심나는 장소를 지적한 다음, 탐조등으로 비추다가 수상한 것이 목격되면 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곧 이어 전차의 시동소리가 한밤중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적의 기관총이 먼저 불을 뿜었다. 이때가 23시 3분 전이었다.

사격소리에 놀란 친구임 중대장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월맹군의 공격준비사격이 진내로 집중하면서 폭음과 파편이 진내를 뒤덮자, 기지내는 금세 혼란의 와중에 휩싸였다. 이때, 중대병력의 절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 혼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일부 병력이 비교적 빨리 각자 자기 호로 뛰어가서 전방의 적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지원포병의 화력을 요청하려고 황급히 관측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섬광이 번쩍하면서 폭풍에 밀려 교통호에 내동댕이쳐졌다. 그 뒤를 따르던 신임 중대장 강세호 대위도 전신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으며 전령 천종록 상병은 좌측 어깨에 중상을 입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이대위는 즉시 관측소 안에 뛰어들어 무전기를 움켜쥐고 대대를 호출하였다. 중대장은 뒤를 이어 제1소대장 고건영 중위와 제2소대장 이춘식 중위가 부상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중대원들이 작렬하는 월맹군의 포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는 처절한 광경이 계속되어 불과 5분 동안에 중대기지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때 전차 속에 있어서 포탄 세례를 받지 않았던 미군 전차병들이 물려드는 적을 향하여 사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포탄소리에 놀라 즉시 잠자리에서 뛰어나와 중대장에게로 달려가던 중 그와 신임 중대장 사이에서 터진 일탄에 뒤로 튕굴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 순간, 그는 중대장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관측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때, 그의 뒤를 따르던 무전병 김진선 병장은 4.2인치 중박격포소대의 추진관측수 최영의 상병이 자기 앞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 주춤하고 있는 동안, 연이어 폭발하는 적탄으로 인하여 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병관측 하사관 박재영 하사가 재빨리 무전기를 들고 제2소대 정면의 화집점 AB311에 사격임무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박하사의 기민한 조치는 한중위가 관측소까지 이르는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었다.

이어서, 한중위가 보병 무선망의 무전기로 사격지휘본부(FDC)에 사격요청을 시작하여 아군 포화의 제1탄이 적의 공격대열 한복판에서 작렬하였다. 이는 박하사가 사격을 요청한 지 3분 만에 날아든 것으로, 그때 한중위의 시계는 23:03을 가리키고 있었다. 실로 이 한 발의 포탄은 적의 예봉을 꺾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중위는 지체 없이 포대 10발의 효력사를 요청한 다음 각 소대의 전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적 포탄 1발이 관측소 지붕에 떨어져 고막을 찢는 파열음이 진동하더니 구멍이 뚫어져 하늘이 보였다.

잠시 후에는 쓰러져 있던 관측소 내의 본부요원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으며, 각자의 부서에서 상황을 처리하였다. 중대장 이대위는 제3소대 정면에도 적이 접근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포병으로 하여금 화집점 AB305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월맹군의 주력이

지향된 곳으로 판단되는 제2소대 전면의 화집점 AB311 근방에도 차단사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에는 이미 아군의 4.2인치 박격포를 비롯한 곡사포의 조명탄이 간단없이 기지 주변을 밝히고, 직사화기의 사각지대에는 진내에서 발사한 박격포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적의 각종 박격포 사격은 상황이 개시된 지 10분 동안이 가장 치열하였으며, 이 동안에 170여 발이 집중되었으며 전사상자의 90%가 이때 발생하였다.

적과 아군간에 맹렬한 포병사격이 계속되었다. 특히 미군의 전차포를 비롯하여, 기지 내의 모든 직사화기는 물려드는 월맹군을 향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하여 그들의 진격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적은 차츰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대치하고 있던 적이 중대기지를 사주에서 포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중대장은 최후의 백병전을 결행할 때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호 밖으로 뛰어나가 있는 힘을 다하여 호령하였다.

“싸울 수 있는 모든 중대원은 나서라. 그리고 진지를 사수하라. 중대장 이하 모든 장병은 육박전을 감행한다.” 이러한 중대장의 목소리가 폭음 사이사이에 울려 퍼지자, 중대원들은 말없이 착검하고 수류탄을 정돈하였다. 모두 한결같이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리하여, 상체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상병까지 모두 외곽선 진지에 산개하여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때에 포병관측반의 무전병 김진선 병장이 포화를 뚫고 관측소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중대장은 비로소 자기 무전기를 받아 쥐고 대대장 최병수 중령에게 전황을 상세히 보고한 후, 이어서 화기소대장 임복만 중위에게 제1소대까지 지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얼마 뒤, 월맹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40분이 경과할 무렵에는 화집점 AB311 근방에 155mm 곡사포탄이 집중되자,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적의 박격포사격이 수그러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진내를

향하여 육박하던 그들의 공격기세도 주춤하여졌다.

이리하여, 중대는 가장 위급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이는 진내의 미군 전차와 중대원의 필사적인 혈투에도 기인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지원포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포격을 유도한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의 용전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대대장의 전투지도

한편, 대대에서는 지휘소 겸 사격지휘본부로서 병커 1개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밤 대대는 책임지역 내의 적정과 인접부대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참모들은 각자의 취침호로 돌아갔다. 그 얼마 후 갑자기 제9중대 쪽에서 섬광이 비치고 폭음이 연이어 일어나자, 그 양상을 심상치 않게 느꼈다.

곧 이어, 대대장과 관계참모들이 각자의 부서에 자리잡고 지원포병도 사격태세를 가다듬어 대기하고 있던 중, 상황보고 없이 보병지휘망을 통하여 화집점 AB311에, 포병 관측하사관 박재영 하사로부터 사격요청이 있었다. 이 사격요청이 있는 지 2분 후인 23:03에 김진규 대위가 지휘하는 포병 제61대대 제3포대의 첫 1발이 발사되었다.

이때, 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무전 주파수를 제9중대의 소대-중대간의 무선망 주파수에 맞추어 교신 내용을 청취하면서 전황을 파악하였는데, 제9중대를 공격하는 적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황이 화급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우기 신임 중대장과 제1·제2소대장을 비롯한 많은 병력이 전사 또는 부상하였다는 내용을 접할 때에는 병커 내에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대장은 포병화력의 지원 없이는 먼동이 틀 때까지의 근 6시간을 적의 파상공격에 버티어 낼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포대군을 통합 지휘하는 김진규 대위에게 4.2인치 중박격포를 위시한 지원사격을 가하도록 하고, 대대에 파견된 미 항공연락장교에게도 항공조명을 요청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독코비행장에 포진한 미군은 8인치 및 175mm 포로서 예상되는 적의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포탄의 재고량은 105mm 탄 960발, 155mm 탄 600발이었다.

이에, 대대는 인접한 미 제9포병 제2대대 B포대(155mm 곡사포)에 화력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활용하는 한편, 미 제3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포탄의 긴급추진 보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단에서는 날이 밝기 전에는 재보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여 왔다. 그 얼마 뒤인 10일 01:30에 적의 병력이 증강된 1개 대대 규모로 윤곽이 드러나자, 대대장은 제10중대로 교전지역의 남쪽을, 그리고 제11중대로 그 북동쪽을 공격하도록 하여 월맹군의 진출을 각각 차단하도록 하였다.

월맹군의 제2차 공격

월맹군의 제1차 공격이 끝난 얼마 후, 제2차 공격이 제2소대 정면에서 다시 전개되었다. 여기에 배치된 미군 전차의 기관포 2문과 경기관총 2정, 그리고 중화기중대의 경기관총 4정이 최저 표적사격으로 화망을 구성한 상태에서, 부상병까지 푹푹 뭉쳐 한덩어리가 된 중대원들이 총격을 가하는 광경은 처절하기보다 차라리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적을 한 사람도 진내로 들여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적은 조기에 이 기지를 점령하려는 듯 파상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기차 내의 완강한 저항으로 희생자가 누적되어 가자, 끝내 공격은 돈좌되었다.

한편, 포병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적의 주력이 접근 중인 제2소대 정면의 화집점 AB 311 일대에 105mm 포대 4~5발이 떨어진 뒤로부터 이에 대한 수정사격을 하는 한편, 155mm포대에게는 그 후방에 대한 차단사격을 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곧 이어 제3소대로부터 북서쪽 독립수 근방에서 적이 자동화기 사격을 가한다는 통보를 받은 한중위는 그들이 양익포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일대에

155mm 포대 2발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포대장 김진규 대위로부터 미군의 155mm 포대를 직접 사격조정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8인치와 175mm포대도 적의 증원 및 퇴로 차단사격에 가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리하여, 한광덕 중위는 3개 포대를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벅찬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8인치 및 175mm의 거탄이 기지 근방에 작렬하는 굉음으로 말미암아 낙탄 수정이 곤란하였다. 그는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하여 3개 포대의 포격을 일단 중지시키고, 우선 제628포병대대의 제3포대 155mm 포로 제2소대 정면의 정글지대를 사격하게 하였으며, 이어 미군의 155mm 포로 제3소대의 외곽선 150m까지 근접사격을 유도한 다음, 효력사를 퍼붓게 하였다. 그리고, 한중위가 가장 자신있게 화력을 조정할 수 있는 105mm 포로 화집점 AB311을 중심으로 한 개활지 일대에 포대 1~2발씩 계속적으로 사격을 집중시켜 월맹군의 치열한 공격을 둔화시켰다.

이와 같이 피아간에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이를 누비며 바삐 뛰어다니는 미군 병사가 있었다. 그는 위스콘(Wiscon)이라고 하는 전차소대의 위생병으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그는 한손에는 구급낭을, 또 한손에는 십자가를 받쳐들고 “다친 사람 없습니까?”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확인한 전사자는 5명이라고 알려준 다음, 총격에도 아랑곳없이 제3소대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때에 북쪽 제3소대 정면의 정글지대를 포격하던 미 제9포병 제2대대 B포대에서 발사한 포탄 1발이 진내 81mm 탄약고 옆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즉시 한중위는 동 포대의 사격을 중지시켰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월맹군은 다시 제3차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곧 격퇴되었다. 이윽고 02:00경이 되자, 그들의 총격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그 30분 후에는 철수하는 정황이 보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적이 주공방향을 전환할 공산이 있음을 감안하여,

각 소대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하고 적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퇴로차단 사격을 요청하여 중대기지를 중심으로 한 근접방어사격으로부터 원거리사격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04:00에, 제2소대 진지 정면으로 수 미상의 적이 다시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하여 왔으며, 일부는 철조망에 달라붙어 최후의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소대원들은 일제사격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주력이 안전지대로 나갈 때까지 아군을 견제하려는 심산인 듯하였다.

한편, 전투개시 벽두에 부상한 신임중대장 강세호 대위는 중대장 병커에서 연락병을 통해 전황을 알아보고 적의 제1차 공격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로부터 4시간 후, 전황이 역전되어 승리가 완전한 04:00 경, 그는 두 눈을 번쩍 뜨고 마침 옆에 있던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에게 “나 먼저 가네. 꼭 이겨야 한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승리를 부탁하고 곧 숨을 거두었다. 강대위는 함경남도 함흥 태생으로 한국전쟁 때인 14후퇴시 월남하여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갑종간부 67기로 1953년 11월 28일에 임관한 장교였다. 그는 1966년 4월에 33세의 노총각으로 결혼하였으며, 신혼 3개월 만에 파월을 지원하여, 8월 7일 제9중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한 지 4일째 되는 날, 지휘권도 인수받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각 소대의 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2소대의 전황 화기소대장 임복만 중위가 중대전술기지를 순찰할 무렵, 제2소대에서는 선임하사관 이종세 중사가 외선을 돌면서 장애물과 경계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호를 파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은 대원들이 긴장 속에 전투태세를 가다듬고 있었으며, 소대병력의 2분의 1은 취침 중이었다. 곧 이어 소대에 배치된 전차의 탐조등이 비치고 적의 박격포탄이 진내에 떨어지자, 제2소

대장 이춘식 중위를 필두로 가면 중이던 소대원들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달려갔다.

이때, 적은 중대본부를 첫번째 표적으로 집중포격을 한 까닭에, 소대지역에는 낙탄이 뜬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소대는 급히 산개 하였으며, 여기에 월맹군의 주공이 지향된 것이다. 한편 소대에 배속된 중화기중대의 제1소대는 국경선 정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이 외곽선 진지에 산개하고 있었으므로, 적의 제1파가 밀려 들기 이전에 이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외선일각의 전차 옆에 있던 송창석 상병과 같은 호에서 경계하던 미군 전차병 네론(Neron)상병이 다같이 머리에 파편을 맞았으나, 이들은 물려드는 적에게 사격을 가하느라고 흘러내리는 선혈을 의식하지도 못하였다.

얼마 후, 소대장 이춘식 중위가 오른쪽 어깨에 파편을 맞고 넘어졌으며, 때를 같이하여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왔다. 적은 그들의 주공 정면인 제2소대 쪽으로 포격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때, 선임하사관 이종세 중사는 소대장이 부상하자 즉시 사격을 통제하고, 좌일선의 제1분대와 제3분대를 소대향도에게 맡긴 후 나머지 병력을 직접지휘하였다. 그는, “소대는 동요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르라. 모두 착검하라. 적이 가까이 오면 수류탄으로 결전하라.” 하고 교통호를 누비면서 소리치며 육박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소대에 배치된 중화기중대의 경기관총 제1소대는 며칠 전에 소대장이 말라리아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선임하사관 이대일 중사가 소대장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적의 선봉이 소대 정면에 시시각각으로 거리를 좁혀 오고 있었지만, 이 중사는 사격을 보류하고 있다가, 그들의 선두가 진전 40m 거리에 이르렀을 때 “사격개시”의 명령을 내렸다. 기관총 4정이 십자화망을 이루면서 최후저지사격을 개시하였다. 실로 이때는 운명의 한순간이었다. 돌파당하느냐, 물리치느냐의 갈림길에서 이중사는 대담무쌍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하

였다. 제2소대 진전 30m까지 기어든 적은 이와 같은 호된 총격을 받자, 고개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여기에 겹쳐, 아군의 포화가 그들의 대열에 작렬하자,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적은 진퇴 유곡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내 물러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적의 예기를 분쇄한 제2소대는 지원포병이 적을 제압하는 동안 탄약의 재분배와 공용화기진지를 전환하는 한편, 부상자를 돌보면서 전투대열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혈투를 다섯 차례나 치른 소대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겠다는 사명감에 생사를 초월한 투지로 사격을 가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특히 이때, 제2소대 선임하사관 이종세 중사와 제1기관총 소대 선임하사관 이대일 중사의 지휘능력은 뛰어났으며, 분대장 정현옥 병장, 그리고 경기관총 부사수 박오택 병장의 활약이 눈부시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경기관총 제1소대의 서재석 병장과 임태영 병장, 그리고 조봉환 상병이 전투중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제3소대의 전황 정희율 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는 제2소대진지 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중대전술기지 북쪽 일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8월 9일 23:00,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될 때 일부의 포탄이 제3소대진지에 떨어진 탓으로 소대는 적지 않은 전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경기관총 탄약수 최영환 상병이 허리에 파편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이는 독코전투의 첫번째 부상자였다. 뒤를 이어 취침호에서 잠자던 소대원들이 일어나서 자기 진지로 향하였으나, 계속 떨어지는 적의 포탄으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이들은 위생병의 가료를 받을 사이도 없이 교전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화기분대장 김지옥 하사는 왼손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탄약을 분배하면서 분대원을 격려하였다. 또한, 제1분대장 심삼덕 하사도 얼굴 하반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압박봉대로 동여매고 교통호를 누비며 분대원들을 지휘하였다. 이러한 숨막히는 초전의 고비를

넘긴 제3소대는 제2소대가 적의 제1파를 격퇴한 얼마 뒤에 전열을 가다듬고, 적과 대치한 가운데 제2·제3의 파상공격을 물리쳤다. 소대는 이 전투에서 이돌선 병장과 김기일·김명수 일병이 전사하였다.

제1소대 및 화기소대의 전황 중대전술기지의 남동쪽을 담당한 제1소대는 적의 충격행동은 없었으나, 그들의 포격으로 인하여 소대장 고건영 중위가 중상을 입어 소대원의 진지점령이 늦어졌다. 화기 소대장 임복만 중위가 신임중대장 강세호 대위의 치료를 들본 다음 60mm 박격포 진지에 달려갔을 때, 선임하사관 김태준 중사는 사격준비를 완료하고 적의 포격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제1소대의 지휘를 겸하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받은 임중위는 동 소대 지역으로 달려 가서, 들떠 있는 제1소대원들을 꾸짖고 전투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임중위는 적의 파상공격의 틈을 이용하여 소대 경기관총 1정은 중화기중대 제1소대 진지에 증원하고, 공용화기의 진지 변환과 제1소대의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이때, 중대에 배속된 중화기중대의 81mm 박격포 진지에 적 포탄 1발이 떨어져, 제3포사수 이운산 상병과 부사수 강길양 상병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여 제3번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제5번포로 조명탄을, 제6번포로 고폭탄을 사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제5번포사수 김정래 병장과 부사수 김창환 병장이 적탄에 부상을 입었으나, 그들은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적의 제1파를 물리친 다음부터는 포병과 항공조명의 공백을 박격포의 조명으로 메꾸면서 주로 제2소대 정면의 사각지대를 포격하였다.

화력지원부대의 활동

사격지휘 본부의 상황 포병 제61대대 제3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제9중대의 교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사격지휘본부로 가던 중 총 소리를 듣고 즉시 전포대에 비상을 걸었다. 곧 이어 23:00에 제9중대에 파견된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로부터, 화집점 AB311에 대한 포대 10발의 사격요청을 받고 사격제원을 전포대에 하달하였다. 각 포는 즉시 제9중대 쪽으로 포신을 돌리고 포탄을 장진하여 일제사격을 개시하였다. 이것이 교전부대의 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전포대장 김경호 중위는 일제사를 한 다음에 사격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화집점 AB311이 제9중대기지 외곽선으로부터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아군의 안전을 고려하여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사격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포대장은 그러한 전포대장의 심증을 헤아리기는 하였으나, 일초가 다급한 전방의 상황을 감안한 끝에 각개사로 사격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하였다.

전포대장 김경호 중위는 이 지시를 받자, 즉시 “각개사”라고 외쳤다. 이리하여 포대 10발 정도의 사격을 가하고 있을 무렵에, 제9중대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또 화집점 AB311의 우측 100m 떨어진 지역에 포대 10발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1개 포대만으로는 사격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병 제628대대 제3포대 연락장교 김규성 대위에게 화집점 AB312·305·301에 포대 3발씩을 차례로 때리라고 지시하자, 1분 뒤에는 독코비행장 부근에 방렬된 동 포대에서 첫 발이 발사되었다.

한편, 제9중대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가 한 마디의 상황보고도 없이 보병지휘망으로 연이어 사격 임무만 요청하자, 제3대대 작전장교 한근모 대위는 답답한 나머지 포병사격지휘망을 사용하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한중위는 짤막하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는 계속 사격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대대장 최병수 중령과 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교전현장의 상황이 화급하다는 것을 알고, 우선 포병사격으로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다고 판

단하자 상황보고를 독촉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10중대와 제11중대지역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은 제9중대만 노리고 있다는 심증을 굳힌 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미군 포병연락장교에 8인치와 175mm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5분 후에 미군의 포탄이 작렬하는 가운데 4.2인치 중박격포는 조명사격을 전담하였다.

이 사이에 제9중대장 이춘근 대위로부터 최초의 상황보고가 있어, 제3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한숨을 돌리고 포탄의 재고를 확인한 다음, 화력의 중단없는 지원을 위하여 미 제9포병 제2대대 B포대를 무전으로 호출하여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로부터 이윽고 적의 박격포사격이 멎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때부터 차분한 마음으로 교전중대의 상황보고를 분석하면서 적의 예상퇴로에 대한 차단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포병 제61대대 제3포대의 포탄 재고량은 105mm탄 150발과 155mm탄 100발이었다.

포병 제628대대 제3포대의 상황 포병제628대대 제3포대장 김근식 대위는 9일 밤 경계상태를 확인한 다음 사격지휘본부에 들어갔을 때, 연락장교로부터 제9중대 기지에 적 박격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즉시 최초의 사격 임무로 화집점 AB 311부근에 포대 3발을 사격하고 뒤이어 화집점 AB 305·312·302로 옮기며 적의 진출을 제압하였다. 이때, 포대장 김근식 대위는 화집점이 제9중대기지에 가깝게 설정된 것을 감안하여 요구된 사격제원에 +200을 하여 첫 발을 발사한 후에 수정사격에서는 +50으로 줄여서 효력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포격이 시작된 뒤에 포대장은 미 제3여단 전방사격지휘본부의 대 박격포 레이더 반의 AN/MDQ-4를 제9중대기지로 지향시키게 하고 8인치 및 175mm포의 화력증원을 건의하였다. 이 무렵 전포대장은 캄보디아 국경 부근의 19번도로 일대에 교란사격을 실시

하던 포 2문도 제 9중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포대군 사격지휘본부의 조정에 따라 포 1문으로 조명탄을, 나머지 3문으로 사격을 계속하였다. 포대장은 이러한 사격임무를 05:50까지 수행하자, 조명탄 재고가 25발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그 임무를 미 제 9포병 제 2대대 13포대에 넘겨 주었다.

4.2인치 박격포 소대의 상황 대대에 배속된 연대전투지원중대의 4.2인치 박격포 제 1소대는 7월 31일부터 제 10중대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8월 9일 16:00에 대대본부기지로 복귀하여 포의 방렬을 끝마친 것이 19:00였다. 이리하여 경계병을 제외한 대원들이 고이 잠든지 2시간 만에, 제 9중대지역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은 소대장 유명재 중위는 비상을 걸고 사격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제 9중대에 파견된 추진관측수로부터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사격임무요청이 없었다. 그 이유는 추진관측수 윤명수 병장과 무전병 최영의 상병이 전투 초기에 적의 박격포탄을 맞아 복부와 두부에 각각 파편상을 입었기 때문에 무전교신이 늦어졌던 것이다. 곧 이어 소대는 제 1 및 제 2 포로 조명탄을 사격하였는데 그때가 23:11이었다. 그로부터 50분간 포 2문으로 조명탄을, 나머지 2문으로 고폭탄을 최대 발사속도로 쏘아댔다. 그리하여 항공조명이 시작된 24:00경에는 마지막 1발을 사격하고 사격임무를 보류하였다.

그러나, 그 후 03:25과 05:10에 항공기의 교대간 생기게 된 조명공간의 틈을 타서 제 9중대의 철조망 선까지 적이 침투한 것을 안 소대는 소대 10발의 효력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제압하였다. 그 후 다시 포격을 중지한 다음 06:20경에 화집점 AB 204에 소대 10발을 사격한 후 사격임무를 끝마쳤다.

전투부대의 투입

제10중대 제10중대장 양재일 대위는 제9중대 쪽에서 포성이 들리자, 곧 무전기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10일 02:30에 대대장으로부터 교전지역의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적의 예상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대는 1개 소대 병력을 기지에 남기고 03:00에 출발하여 1시간 뒤에는 야프논(Ia Pnon) 강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거세어 건너기가 어려웠으므로 중대장은 강줄기를 따라 진출하다가 얕은 곳에서 도섭하겠다는 뜻을 대대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리하여, 05:00에는 최초 계획한 목표보다 동쪽으로 2km 떨어진 제9중대기지 남서쪽 1.5km 지점에 도착하여 이곳에 병력을 산개하였다. 그 얼마 뒤에 제1소대 제1분대의 김덕수·김영배 두 상병은 소대 우측방을 경계하던 중 개울을 건너오는 적 1명을 사로잡았다. 적은 60mm박격포 1문과 수류탄 2발을 갖고 있었으며, 현지에서 심문한 결과 제9중대 기지를 공격한 월맹군의 패잔병이었다.

제11중대 이인수 대위가 지휘하는 제11중대는 7월 27일에 제9중대에 임무를 교대하고 대대 예비로서 대대본부기지 일각에 주둔하고 있었다. 전투 당일에는 제9중대에 파견되었던 제1소대도 복귀하였으며, 제3소대가 기지 남쪽 플레이기라오킬(Plei Girao Kle) 부근에 잠복하였으나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중대장은 오늘도 접적 없이 보내는구나 생각하던 차에 느닷없이 제9중대지역에서 총소리와 포탄이 작렬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중대는 02:00에 대대로부터 출동준비명령을 받았으며, 이때 제9중대를 공격하는 적의 규모가 증강된 1개 대대로 추산된다는 것을 알았다. 중대는 03:30에 출동을

개시하여 05:30에 목표인 제9중대기지 북쪽 1km 떨어진 능선을 점령하였다. 이곳에서 제9중대장과 무전으로 협조한 후, 06:00에 공격을 개시한 제11중대는 미군전차 2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저항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고 제9중대기지 서쪽 철조망 선까지 진출하였다. 그곳에서 중대는 적 시체 30여 구를 확인하고 그때까지 도주하지 못한 월맹군 10명을 사살하는 동시에 5명을 생포함으로써 만 8시간에 걸친 치열한 독코전투를 마무리지었다.

결 언

제9중대 전술기지의 총성은 멎었으나 그때까지도 초연이 자욱한 때인 07:00에, 미 제3여단장 워커 준장이 제3대대장 최병수 중령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눈앞에 전개된 모퉁이 송연한 광경을 보고, “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하였지만 이와 같이 협소한 진지 전방에 이렇게 많은 적병이 사살된 것은 일찌기 보지 못하였다.”라고 경탄하여 마지않았다.

한편, 포로들의 진술로 제9중대기지를 공격한 적은 월맹군 제308사단 제88연대 제5대대로 밝혀졌으며, 이 대대는 등바이(Dung Vay) 대대라고도 호칭되었다. 그리고 동 연대는 7월 중순에 콘툼 성에서 캄보디아와 월남의 국경선을 따라 남하하여 플레이쿠 성 변경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이날 제9중대 전술기지에 침투한 것이다.

이때의 공격에 동원된 적의 병력은, 제5대대 예하의 4개 중대 400명과 75mm 무반동총, 82mm 박격포, 공병특공대의 3개 중대 300명으로 증강된 700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전투 결과 확인된 시체 184구 외에도 그들이 운반해 갔을 시체와 부상병들을 합친다면 적의 손실은 500명 선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공격에 참가한 월맹군 병력의 대부분이 격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코전투 후 수도사단과 미 제1야전군사령부의 합의에 의하여, 제

3 대대는 2 단계로 나뉘어 원대복귀하였다. 즉, 8월 15일 제9 중대가, 그리고 나머지 부대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기지를 미 제3 여단에 인계하고 빈케(Binh Khe)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개념의 실효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던 미군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고 그 합당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군측은 이를 파이어베이스(Fire Base)라고 명명하고 그 전술적 운용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한국군은 이 독코전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청음초 운용은 야간에 조기경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9 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2 일 간에 걸친 장거리 정찰에서 오는 대원들의 피로를 감안한 끝에, 대대에서 지시한 야간잠복과 청음초를 전투당일 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이 중대기지 외곽선에 접근할 때까지 그들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외곽선에 배치된 경계병의 3 회에 걸친 적정보고도 묵살하였다. 그는 월맹군이 적피아타(敵疲我打)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어야 마땅하였다.

② 방어의 성패 여부는 화력지원계획의 합당성과 그것의 효과있는 운용능력에 의하여 가름된다. 이 전투에서 중대를 지원한 포병은 105mm 곡사포 1 개 포대 6 문과 155mm 곡사포 2 개 포대(-) 10 문, 그리고 8인치 및 175mm 평사포 각 2 문과 그밖에 4.2인치 박격포 4 문, 81mm 및 60mm 각각 3 문이었다. 이는 교전장의 공간 넓이를 감안할 때 충분한 화력이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지원포화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포격의 제압 시기와 우선순위 그리고 사격제원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제9 중대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는 전투 초기의 화급한 상황하에서도 포격을 정확하게 유도함으로써 적의 예기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3 개 포대의 화력을 훌륭하게 조정하였다.